

		보도자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	배포일자 2021년 10월 4일(월) 총 3매		
담당 부서 관광진흥과	담당자 • 관광마케팅담당 전미경 ☎440-4066 • 담당자 성주심 ☎440-4067		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무관중 · 온라인 INK콘서트, 1,000만 명 관람

- 인천 주요관광지 배경 XR무대 등으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 남겨 -
 - K-POP 공연, 쿠키영상 등 콘텐츠 INK홈페이지에 업로드 재 관람 가능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와 인천관광공사(사장 민민홍)는 지난 9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‘제12회 INK(Incheon K-Pop)콘서트’ (이하 ‘INK 콘서트’)가 국내·외 K-POP 팬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.

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무관중·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NCT127, 더보이즈, 에스파 등 국내를 대표하는 11팀의 K-POP 스타들이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다.

이번 콘서트에는 1,000만 명이 관람하며 다시 한 번 뜨거운 K-POP 열기를 실감케 했다. 인천의 주요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XR무대 등 단순 K-POP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천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콘서트 구성으로 국내·외 K-POP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.

또한 K-POP 공연뿐만 아니라 콘서트 관람을 대기하는 팬들을 위해 전문 쇼호트가 K-POP 스타와 함께 인천의 뷰티와 푸드를 소개하는 INK 라이브 쇼와 스타들의 포토타임 및 인터뷰 등 사전 콘텐츠를 진행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.

아울러 INK 콘서트 홈페이지(www.inkconcert.com)에는 스타가 직접 방문한 인천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인천 관광 지도를 제공해 다양한 인천의 매력을 선사했다.

INK 콘서트 생중계에 참여하지 못한 팬들과 재 관람을 원하는 팬들을 위해 K-POP 공연, 쿠키영상, 사전콘텐츠, 스타들의 We:Ink 챗린지는 등 다양한 콘텐츠가 INK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스타들 영상과 인천의 관광지를 즐길 수 있다.

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“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INK콘서트가 국내·외 많은 K-POP 팬들의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”며 “대한민국 대표 한류콘서트로서 내년에도 전 세계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INK콘서트를 준비하겠다”고 말했다.

아울러 콘서트는 SBS 지상파 및 SBS MTV, SBS FiL 등의 케이블 채널, 유튜브, 네이버 V라이브, U+아이돌라이브를 통해 다시 관람할 수 있다.

<붙임> 사진자료

